



種畜改良

Vol.1, No, 3

Registered Animal News

July. 1979

家畜의 夏季 飼養管理 要領

(7 ~ 9)

登 錄 部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高温과 장마철에 의한 多濕의 영향으로 家畜의 管理에 있어 상당한 對策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된다.

쇠파리, 모기, 진드기 등의 吸血昆蟲의 피해가 극심하고 氣溫의 上昇과 多濕은 家畜에 食慾을 떨어뜨리고 脫水, 疲勞 현상을 일으키며 27~28°C 以上の 高温은 呼吸, 맥박수의 증가와 함께 消化障害, 呼吸器疾患을 併發시켜 家畜을 마르게하는 원인이 되며 日射病, 熱射病에 對한 저항력을 弱화시켜 家畜의 健康 및 生産性 提高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돼지의 경우는 특히 더위와 濕度에 弱한 家畜으로서 細心한 配慮가 있어야 함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15~20°C의 適溫 유지와 乾燥한 周圍環境 마련에 于先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름철의 不適當한 環境에 대처, 먼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해 보면

첫째 방충망 설치에 의한 쇠파리, 모기 등의 害蟲 防除와 殺蟲劑, 소독제 등의 약품 살포에 의한 진드기, 이 등 외부 기생충의 제거라 하겠다.

둘째로는 通風장치의 最大活用과 防暑시설의 利用으로 畜舍內部를 가능한한 시원하게 해주며 따라서 청결하고 乾燥한 우리 (畜舍) 가 되도록 할 것이며 家畜으로 하여금 安樂感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세째 여름철은 體溫發散을 위한 體水分의 소

모가 심하고 外部의 不適當한 環境변화는 家畜 自體의 新陳代謝 및 營養均衡을 깨트릴 要素가 多分하다.

따라서 부족하기 쉬운 鹽分의 보충과 根菜類 靑草等 嗜好성있는 사료급여로 食慾의 증진과 體力 補強에 힘써야 한다.

네째로는 直射光線을 피하고 午前 10시 以前과 午後 3시 以後에 運動 또는 放牧을 실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낮의 더운 때에는 畜舍內部나 나무그늘의 陰涼한 곳에서 쉬도록 하며 또는 인근 냇가의 물에 沐浴을 시켜 피부의 손질과 함께 體溫을 下降시키는 효과도 갖도록함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청결, 乾燥와 관계되는 것으로 給與飼料의 變質 防止와 飼槽의 청결이라 하겠다.

高温, 多濕하므로 저장 飼料의 腐敗가 심할때이며 특히 飼槽內의 殘餌는 食중독 내지는 嗜好성을 떨어뜨리는 原因이 되므로 殘餌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以上은 여름철 家畜管理의 일반사항으로서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일이지만 또한 잘 되어지지 않는 家畜 管理의 基本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以上의 一般管理를 主眼點으로 두고 畜種別, 月別 管理事項을 細分해보겠다.

韓牛. 肉牛

7. 8. 9. 月을 통하여 良質의 野乾草 및 사일레이지 제조, 저장에 유념, 틈틈히 越冬飼料 준비에 萬全을 기함과 동시에 濕한 장소를 피하여 乾草 등 飼料를 저장, 變質 또는 酸敗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구충제의 撒布, 찬물에 의한 藥浴, 방충망 설

치등으로 진드기, 모기, 파리등 외부 寄生蟲의 防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導入 肉牛의 경우 진드기 구제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放牧前 파리로 프라스마病에 對한 예방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發病의 早期 發見은 치료가 용이한 것으로 안다.

진드기의 제거도 중요한 일이지만 일단 發病後에 대한 치료대책도 중요하므로 사전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 줄로 안다.

다음으로 韓牛는 여름철에 그 값이 下落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이 때를 이용하여 短期肥育 또는 큰소肥育을 위한 素牛를 구입, 9月以後의 韓牛 肥育에 對備함도 養畜家로서 이때 계획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乳 牛

젖소 飼養에 있어 여름철 管理중 重要事項은 우선 生産된 牛乳의 保管과 安全 輸送이라고 하겠다.

搾乳기구의 세척, 소독 및 搾乳管理의 改善 및 冷蔵의 철저 등으로 牛乳의 酸敗防止에 細心한 注意와 對策이 있어야 하겠다.

다음은 牛群 또는 個體에 對한 疾病對策이 必要한 일로서 우선 乳房炎과 腐蹄病에 대해서는 平常時 日課로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給與飼料의 質 및 搾乳量과도 相關 關係가 있는 것이지만 畜舍內의 청소, 소독 搾乳後의 乳頭 소독, 硫酸銅液, 生石灰 등에 의한 肢蹄의 소독은 이들 病의 좋은 防除 對策이 되리라 믿는다.

導入 肉牛에서의 마찬가지로 진드기 地域에 對한 放牧은 要注意 事項으로서 事前 對策이 있어야 할 줄 안다.

또한 9月들어 서면서부터는 관내 수의사 등과 타합 브르셀라와 결핵에 대한 檢索도 실시해야 한다.

아침, 저녁 서늘한 때를 이용한 放牧과 鹽

分을 겸한 人산갈습의 給與 그리고 기호성 있는 사료급여는 더위한 약한 乳牛의 경우 體力의 增進과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일로서 事前 計劃된 日課表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다음은 粗飼料 對策으로서 乾草의 준비, 엔시 레이지 저장을 서둘러야 하겠고 심한 放牧이나 예취로 草生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飼料圃의 경우 2番草 收穫에 이어 3番草에 취에 對備해야 하며 또한 草地 조성을 위한 野山의 개간과 함께 根菜類 알팔파의 파종과 草地의 補播 및 更新을 해야 한다.

9月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라이그라스와 청예호밀을 파종하고 제반 牧場의 飼養, 管理問題 등을 越冬對策으로 轉換해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養 豚

그늘과 換氣 등 通風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짚, 하수구 등의 설치로 濕氣를 낮추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서 傳染病 예방에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풍미있고 신선한 飼料를 給與, 食欲의 增進과 健康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8~9月은 妊娠末 또는 分娩時期로서 妊娠末期의 補充飼料 給與 및 靑草 등 섬유질 사료 급여로 변비 등 예방과 난산 퇴치에 또한 주의해야 하며 分娩에 對備, 分娩時의 설치와 壓死防止에 손을 써야 할 줄 안다.

子豚은 항상 따뜻하고 건조하며 또한 시원한 환경 유지에 유념 均衡된 子豚飼料 給與問題와 함께 充實한 子豚生産에 萬全을 기해야 될 줄 안다.

生後 2週부터는 良質의 補助飼料를 따로 급여해주는 동시에 특히 철분급여에 유의해야 하며 3個月까지는 離乳飼料를 自由채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함께 寄居하며 보살피는 精誠이 夏季飼養 管理의 要點이라 하겠다.

目次	家畜의 夏季飼養管理	1	成功事例 高峰山牧場	5
	日本の 養豚과 登錄檢定	3	協會消息	7